

어린이 천국,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찬양, 봉사 등 은혜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식을 전한다.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진리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고,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는 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다. 이처럼 믿음에는 크고 작은 분량이 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주님의 사랑~

악성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한 뒤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정숙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31호 2012년 5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천국 소망 가득케 하신 주님, 사랑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쑥쑥 자라나는 만민의 어린이



“우리 마음 하얀 마음/ 주님 주신 예쁜 마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하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특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흰돌성가대.

우리 교회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진리의 꿀을 공급받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

특히 예능부(찬양팀, 율동팀, 위십팀, 반주팀, 고적대)로 활동하며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각종 행사나 토요찬양예배(오후 3시) 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로 구성된 흰돌성가대(지휘 양혜숙 찬양선교사)는 때를 쫓아 예

배와 교회 행사 시 특송으로 영광 돌려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있다. 또한 만민아동봉사대에 소속된 어린이들은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한다.

이뿐 아니라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온 만민의 어린이들은 아름답게 성장해 세상에서는 물론, 교회 각 분야에서 충성하는 일꾼들로 나오고 있다.

5월 6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

교(교장 장성식 목사)에서는 교역자회장을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2012 어린이 주일예배’를 드린다. 아동주일학교 예능부가 준비찬양을 함께하며, 사회는 김정도 형제(5학년), 대표기도는 박예찬 형제(6학년), 성경봉독은 양지혜 자매(6학년)가 담당한다.

한편, 편집국에서는 아동주일학교 중반기 공과교재 『십자가의 도-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간한다.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소개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의 일환으로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자취’ 코너는 주님의 행적과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된다.

미국 월드성결센터에서 세미나 개최

미국 플로리다 주 노스 포트시에 소재한 월드성결센터에서 지난 4월 20일과 21일, ‘성경과 삶에 나타나는 성결’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월드성결센터(대표 영적외교단 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는 2011년 5월, 성결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한국,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서 참석했다.

마크 마잘레프 목사의 인사말, 모글리스 박사의 개회사에 이어 미국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교회 담임인 비탈리 피쉬버그 목



강사 정구영 목사(우)와 ‘성경과 삶에 나타나는 성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좌)

사가 ‘성결 복음’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이후 주강사 정구영 목사(만민중앙교회 부목사)는 첫째 날에 ‘하나님은 왜 성결된 자녀를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 인간 경작의 섭리에 대해 전했다. 둘째 날에는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되는 방법과 성결된 영의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4월 22일 주일에는 노스 포트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슬라빅 오순절 교회와 베니스 시에 위치한 러시아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설교했고 많은 사람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불가리아에서도 기독의학 콘퍼런스 열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치유 사례를 의학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작년 호주 브리즈번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전을 갖게 된 불가리아의 류브카 탄체바 박사가 WCDN의 사역을 조국에서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낙태 반대 운동’, ‘줄기세포’, ‘장애인 재활’, ‘마약 및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

뤄졌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마비, 백혈병, 암 등이 치유된 사례가 발표됐다.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좋은 반응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인근 발칸 지역 국가들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전 세계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16개 지부가 있다.